

조직논문

오늘날의 해석학적 논의와 칼빈의 유의성 Hermeneutical Discussions Today and The Relevance of Calvin

카버 유 (홍콩, 중국신학대학원 부총장, 조직, Ph.D.)
Carver T. Yu (Hong Kong, Vice President, Chin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ogmatic Theology, Ph.D.)

번역: 이 태호 (침례신학대학교 강사, 윤리, Ph.D.)
Translator: Lee, Tae-Ho (Lecturer, Korea Baptist Theology
University, Christian Ethics, Ph.D.)

카버 유 박사의 약력

카버 유 박사는 현재 중국 신학대학원의 부총장이며 조직신학 교수이다. 그는 1975년에 중국신학대학원의 설립 교수의 자격으로 돌아오기 전에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컴버랜드 장로교회의 사역자이고 그의 아내는 홍콩장로교의 사무장으로 섬기고 있다. 유박사는 우리문화의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근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의 책 존재와 관계 - 서구의 개인주의와 이분설에 대한 신학적 비판 (에든버러, 1987) - 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의 존재론적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그는 또한 중국 문화를 재건함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슬라이마허에 의하면, 오해란 일반적이고 또한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이해라는 개념은 인식 불가능할 정도로 해체되었고, 누구도 올바른 이해와 오해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원래 이해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오던 해석학은 이제 독자를 의미창조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로 놓으면서 의미의 미결정상태를 긍정하는 철학적 학문이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석이란 의미를 조작할 수 있는 면허와 같이 생각된다. 해석학이란 의심스러운 문학이론들과 상호 모순되는 철학적 경향을 하나의 가방에 담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쉽게 포스트모던 해석학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항상 그것의 완전한 철학적 의미를 보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¹⁾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읽기와 이해에 관한 포스트모던 방법을 논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사상이 여흥 또는 순수한 미적 경험을 위해 만들어지는 후기 산업화사회에서 정당하고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로 긍정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에는 서로 다르게 읽어야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가 존재한다. 포스트모던 식의 읽기를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점을 보이겠다). 이 초기의 논의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칼뱅의 성경읽기 방법론의 이 시대를 향한 유의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자기에적인 문화에서의 읽기 - 자아의 즐거움을 위한 자아 없는 읽기

1) 철학자 지안니 바티모가 지적하듯이 해석학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허무주의이다. 해석학은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망기사이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신에 관한 이야기의 필요성을 제거했듯이, 해석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책임을 맡았다. 해석학의 과제는 진리에 대한 해석적 본질과 허무주의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티모는 해석학의 허무주의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지안니 바티모, 「해석을 넘어서」, 데이빗 웹 역 (케임브리지: 폴리티 프레스, 1997), 1-14 를 참조하라.

해석의 과정에서 텍스트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작업에 독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두 흥분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그것의 극단적인 의미를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입장은 취하기 힘든 입장이다. 의미가 객관적인 근거를 상실할 때 독자 자신의 의미자체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 독자 자신의 자아도 통일성을 상실하고 분열될 것이다. 구조주의자 또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정신에 대한 생각을 따른다면, 포스트모던 해석자 자신도 파편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영원히 움직이는 문화적 코드의 집합체로 해체될 수 있다. 텍스트를 대면하는 독자는 그 자신이 대부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텍스트의 우연한 병렬체라고 들을 것이다.²⁾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의미가 완전히 상징과 코드의 네트워크상에서 유동적이라면, 읽는다는 행위는 단지 독자가 우연히 위치하게 된 언어적 문화적 제도의 일시적인 반향에 불과한 것이다. 창조적인 참여라는 것은 단지 환상이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 스스로를 해석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언어적-문화적-이념적 그물망일 뿐이다. 독자는 단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역사의 바로 현현이다. 하나의 텍스트로써 독자는 언어적 네트워크의 광대한 바다에서 수많은 텍스트의 결집들과 관계 속의 조그만 언어적 결집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임혀지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자신을 이러한 성찰을 성찰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 만들면서 유동적인 코드의 굴절된 성찰을 성찰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질문해야만 한다. 무엇이 읽기의 요점인가? 읽기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읽을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 의미하는 바를 보기위하여 포스트모던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의 비평이론의 논리적인 결론을 추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읽기는 독자를 만나는 쓰여진 텍스트와 텍스트로서의 독자에 존재하는 코드의 재작업과 융합을 위한 행사이다. 이러한 융합의 행사에서 “사실상 읽는다는 것은 언어의 노동이다. 읽는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것들을 이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지어진 의미들은 다른 이름들로 전환되어 나가고 이름들은 서로를 부르고 다시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만든다. 나는 이름을 짓고, 나는 이름을 없애고 나는 이름을 다시

2) “이 텍스트를 접근하는 ‘나’ 는 이미 무한하고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그 근원을 잃어버린) 다른 텍스트들과 코드들의 복합체이다,” 롤랑 바르트, *S/Z*, 리차드 밀러 역 (뉴욕; Hill and Wang, 1974), 10.

짓는다...”³⁾ 읽는 행위에 있어서 독자는 텍스트와 자신의 코드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의미를 창조해내는 행위이다. 그러나 누가 창조하는가? 누가 이름을 짓고 이름을 없애고 다시 이름을 짓는가? 우리는 여기서 나라는 것이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를 부르고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름 지어진 의미들이다. 의미가 일단 다시 결합되고 나면 전의 나를 구성 하던 의미들은 망각되고 텍스트의 의미도 망각된다. 그래서 바르트에게는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텍스트의 무책임성과 체계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읽은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언어의 작업” 으로서의 읽기는 독자 안에서 그리고 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의 작업인 것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는 신비한 언어의 작용가운데 “나”는 “내”가 나인 것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 “내”가 읽는 텍스트도 또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텍스트는 원래의 의미를 박탈당한 채 망각되기 위하여 임혀진다.

그러면 왜 누군가가 읽는 것이 필요한가? 왜 한 세트의 조합된 의미가 다른 것과 같이 좋은 것인데, 어떤 것이 재구성되기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논리적인 결론은 그것은 텍스트에서 즐거움의 추구라는 쾌락주의의 특별한 형태라는 것이다. 리차드 호와드는 바르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줄질을 한 가루가 자기장 안에서 형체를 이루는 것같이 부분과 조각들이 함께 모여서 지식의 무관심에 대항하여 책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즐거움을 결정하고 우리의 황홀감을 예시하고 고상한 척하는 이념적 분석에 대항하여 텍스트에서의 축복을 예를 들어 보여주기 때문에 비평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읽기의 시학뿐만 아니라 읽기의 연가까지 가지게 되었다.⁵⁾

이러한 추구가운데 모든 기준이나 장벽들이 바르트가 아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평탄해질 지도 모른다.

3) Ibid, 11.

4) Ibid.

5) ‘텍스트에 대한 노트’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리차드 밀러역 (옥스포드: 블랙 웰, 1975), vii.

자신의 내부에서 통합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라는 과거의 유령을 단순히 버림으로써 모든 장벽과 계층과 모든 배타적인 것들을 제거해버린 어떤 사람을 (완벽한 테스트와 반대인 사람인), 모든 언어를 섞어버리고,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비논리적이고 부조화스럽다라는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소크라테스적인 아이러니와 법적인 테러리즘에 직면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한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반 영웅이 존재한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즐거움을 취하는 독자이다. 그래서 성경의 신화는 역전된다. 언어의 혼잡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다, 주체들은 같이 작용하는 언어의 공존에 의하여 축복에 다가간다. 즐거움을 위한 텍스트는 허가된 바벨이다.⁶⁾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은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는 즐거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이 없다. “어떤 보상도 없고, 비판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전략적인 목표를 의미하고 사회적인 용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단지 이 판단은 결코 수식적인 단서가 붙지 않는 바로 그 자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한 것이다.”⁷⁾

일관된 자아를 거부하는 모든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자기애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일관된 자아는 해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제아무리 분열되더라도 궁극적인 준거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이 해체하려고 하는 근대의 중심에 있는 개인주의를 오히려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 바르트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두 가지 세계의 최선을 가지고자 한다. 책임성 있는 자아를 제거하지만 자아의 탐닉을 위한 자아는 보전하는 것이다.

즐거움을 위한 읽기 심지어 황홀감을 위한 읽기는 인류 역사상 많은 문헌들 중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그것을 논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읽기인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즐거움이나 환희를 위하여 쓰이지 않은 그리고 즐거움

6) Ibid, 3.

7) Ibid, 13. 이태릭체는 원문에서 온 것이다.

만이 모든 것의 척도라는 환상을 깨어버리기 위해 쓰인 텍스트는 없는가? 즐거움을 위하여 읽으면 오히려 즐거움을 주지 않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읽으면 지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텍스트는 없는가? 왜 그런 텍스트들이 경멸과 심지어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가? 왜 전략적인 목표와 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비변증적으로 쓰인 텍스트가 경멸과 함께 기각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문화적 전통의 이른바 잠재해 있는 이념적 기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아래 많은 포스트모던 텍스트들이 쓰이지 않았는가? 그 텍스트들은 전략적인 목표와 사회적 비전을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닌가? 그것들 모두를 우리가 경멸하면서 대하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읽기를 단순히 미적인 체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읽기의 비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류문화의 오랜 역사동안 미적 체험은 항상 읽기와 쓰기의 통합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자체를 위한 것은 드물었다. 다양한 인류의 전통 속에, 그것이 서구적이던 중국적이던, 읽기와 쓰기는 그것이 진선미가 나타나는 것의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깊은 도덕적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셋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즐기 위한 텍스트도 존재한다. 즐겁고 그 자체를 위한 텍스트도 있고 도덕의 존재론적 침입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해 쓰여진 즐거움을 위한 텍스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읽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텍스트를 도외시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이념적으로 도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하하면서 한 종류의 읽기 체험으로부터 해석의 원칙을 세우려는 시도 즉 미학적 사건으로의 읽기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읽기에 대한 생각을 뒤집는 읽기를 시도하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미학적 체험으로서의 읽기라는 생각은 최근의 것이다. 어떤 비평가들은 샤를르 보들레르를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그의 1857년의 작품 *악의 꽃*은 서양에서의 읽기의 개념에 있어서 변화의 분수령이다. 읽기를 단지 미학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추세는 단지 최근 몇 십 년 동안에 발전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발전을 좀 더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의 등장은 시장경제에 의하여 나타난 후기 산업사회의 등장과 일치한다. 시장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화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사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었다. 쓰기와 읽기는 정보와 아이디어와 지식과 심지어 지혜마저도 (실제로 시장에 온갖 지혜가 판매되고 있다) 만들어 내는 산업의 일부분이다. 쓰기가 상품이 되었을 때, 시장은 독자들을 불가피하게 소비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읽기는 순수하고 간단하게 오락의 행위로 인식되어 진다.⁸⁾ 작가는 만약 그들이 시장의 표준에 의해 성공적인 작가로 남아있기 원한다면 가능한 한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소비를 위한 텍스트는 가능한 한 유연해서 모든 독자들이 그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독자의 창조적 전유에 열려있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독자가 텍스트의 즐거움에 있어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독자는 그의 즐거움에 소용되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다.

롤랑 바르트는 비평가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오늘날 작가(Writer)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안다. 그는 저자(Author)가 된다는 것의 본질이 바뀐 것을 한탄한다. 오늘날 저자는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쓰는가’와 글쓰기의 기술적 그리고 장인적 측면이다. 세상의 의미나 사물의 실상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다. 그러나 비판적이기를 거부하면서 바르트는 지적한다. “저자란 이 세상의 왜라는 질문을 글 쓰는 법으로 흡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른바 기적이란 이러한 자기애적인 행위가 항상 세상의 질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몰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자는 열려진 질문인 왜 세상인? 사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최고로 탁월하게 발견한다.”⁹⁾ 그러나 저자는 언어라고 불리는 노동이 가미된 실체를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저자들은 필연적으로 세

8) 마이클 햄버거는 내적인 귀를 위한 시와 즉흥적 소비를 위한 시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 시인은 언어의 실험실과 유흥산업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시의 진실* (런던: 앤빌 출판사, 1982), 312 페이지. 그리고 316 페이지도 보라.

9) 바르트, “저자와 작가,” *롤랑 바르트 선집*, 수잔 존탁 편집(런던: 빈타지, 1982), p.187.

상을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잃어버린다.¹⁰⁾ 한 사람의 저자는 그러므로 순전히 직업으로서 글을 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나 실체는 그들의 관심이나 책임이 아니다. ” 저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저자의 진정한 책임은 문학작품을 실패한 헌신 (failed commitment)으로 지지하는 것이다.”¹¹⁾ 바르트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부류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들과 구별되는 다른 부류도 있다. 이들이 바르트가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목표는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를 생각의 도구로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의 순수성을 주장한다. 생각은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게 그리고 후하게 준다. 그래서 작가들은 자유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 사회가 늘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제공한다.¹²⁾ 그러나 바르트에게는 작가들은 전통에 노예같이 묶여있는 서기관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작가들도 소비문화에 의하여 결국은 저자로서 변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자-작가라는 혼성물이다.¹³⁾

저작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 읽기의 경험은 필연적으로 구속된다. 그리고 모든 읽기의 이론에 관한 담화는 그러한 제한된 읽기의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동시에, 의미와 실체가 저자에게 무관하게 될 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독자들이 다른 대안이 없이 즐거움을 위하여 쓰인 작품들만을 대할 때, 그들은 강제로 즐거움을 위한 작품만을 읽게 되고 또한 다른 종류의 읽기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읽기의 도덕적 책임

그러나 읽기의 역사에는 다른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어서 읽기의 본질에 대한 다른

10) Ibid,

11) Ibid, 188.

12) Ibid, 190-91.

13) Ibid, 192.

인식이 존재한다. 우리는 최근까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를 지적할 수 있다. 인격형성을 위한 읽기와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읽기이다.¹⁴⁾ 이 두 가지 인식은 한 가지를 공유하는 데 그것은 바로 작가와 독자는 모두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읽고 쓰는 것 모두 그것들안에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적인 관점이 항상 훌륭한 읽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순수한 미적 체험으로서 읽기는 최근까지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고대 그리스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읽기와 쓰기는 자신의 계발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왔다.

미셸 푸코가 지적하듯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학은 다른 종류의 미학 즉 존재의 미학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알키비아데스 에서 플라톤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읽기와 쓰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¹⁵⁾ 하이데거도 또한 그리스사람들에게 최고의 미적인 경험의 상태는 앎의 번뜩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¹⁶⁾ 비록 플라톤이 호머가 그의 서사시에 신화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가치는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인의 황홀경은 “뮤즈에 의하여 사로잡힌 것이고 그들의 광기가 온유하고 순수한 영혼을 점령해서 깨어나게 하고 온갖 종류의 노래와 시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선조들의 수많은 행위를 찬양함으로써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다.”¹⁷⁾ 시에 관한 그리스적인 이상은 시인은 그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할 지라도 교사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건설자로서 간주되는 것이다.¹⁸⁾ 플라톤의 신화의 사용에 대한

14) 이 두 가지 전통에 대하여, 나는 1994년 서구문학과 기독교에 관한 엔칭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패트리샤 워드의 “윤리적 전통과 읽기의 역사”라는 미출간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15) “윤리학의 계보에 관하여: 진행 중인 작업의 개관” 에이취 엘 드레퓔스와 폴 레인보우, 미셸

16) 마틴 하이데거, 「니체 1권: 예술로서 권력에의 의지」 (뉴욕: 하퍼 앤드 로우, 1979), 80.

17) 플라톤 *파에드루스* 245a 워너 재거, 「파이데이아 - 그리스 문화의 이상」, 길버트 하이에트 역 (뉴욕: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1945), 1:40.에서 재인용.

18) 재거, Ibid.

우려는 그 책에 묘사되어 있는 신들의 자의적인 행위들이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덕을 개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생긴 것이다. 확실히 호머의 일리아드는 단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생의 이상에 대한 서술이다. 워너 재거는 일리아드에서 분명한 도덕적 구상을 본다.

아킬레스의 방패의 묘사를 유발시킨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한 깊은 감각은 호머의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 지배적인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리듬이 움직이는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어떤 날도 인간의 고통으로 가득차서 시인이 혼돈가운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조차 알 수 없는 날은 없다...호머는 자연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주의자도 아니다...호머나 대부분의 그리스사람에게, 궁극적인 윤리적 경계선은 도덕적 의무의 법칙이 아니라 존재의 궁극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호머의 서사시가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의미에 관한 깊은 지식, 즉 궁극적 실재에 대한 감각 때문이다.¹⁹⁾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역사와는 달리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철학과 목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의 중요성을 긍정한다.²⁰⁾ 시와 비극을 즐기면서 독자들 혹은 청중들은 감정적인 참여를 통하여 인생에 내재적인 보편적 원칙들을 인식하게 된다. 비극의 성격에 관한 토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가지는 도덕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들의 생각이 일반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한다.²¹⁾

플루타크는 인격을 형성하기위한 읽기라는 생각의 가장 명쾌한 예를 제시해 준다. 그의 유명한 작품 인생들은 역사적 인물들의 생애를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을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쓰였다.²²⁾

19) Ibid, 1:50.

20)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9,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저작」 (뉴욕: 랜덤 하우스, 1941), 1464.

2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6, 상계서, 1460-61.

22) 워드는 플루타크의 *인생들이*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 아미오트, 필립 시드니경과 루소에서 미친 영향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상계서, 5-9.

이러한 도덕적인 읽기라는 개념은 우리의 포스트모던 비평가에게는 물론 불쾌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읽기이다” 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순히 내팽개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전복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 더 적절한 주제로 넘어가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히 저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노력으로서 읽기는 서구의 인본적인 전통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를 반영한 것이다. 만약 문화가 인간의 담화위에 세워진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과 만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진지하게 어떤 것을 만나는 것이다. 읽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임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결성을 지켜주고 존중해야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을 대하는 데에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필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인증 받지 못한 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열적인 반론에서, 밀턴은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책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책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 안에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약병처럼 그것들을 길러낸 살아있는 지성의 순수한 효능과 추출물을 보전하고 있다...훌륭한 책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적 존재를 죽이는 것인데 훌륭한 책을 죽이는 것은 이성 자체 즉 하나님의 형상자체를 죽이는 것이다. 훌륭한 책은 세세토록 보전되기 위해 방부 처리되고 보관된 위대한 정신의 소중한 피와 같은 것이다.²³⁾

우리가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를 가진다고 해도 진정한 작가는 도덕적 책임감을 가

23)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시전집과 주요산문」, 메리트 휴즈 편 (뉴욕: 오디세이 출판사, 1957), 720. 워드의 상계서, 11 을 참조하라.

지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마도 데리다의 해체의 작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데리다의 그래머톨로지에 관하여를 텍스트의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해체라는 생각의 통일성을 위반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 데리다는 거기에서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에 대한 비판과 거부라는 생각을 텍스트에 분명하게 담고 있다. 그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밀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대가의 영혼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파괴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의 의도된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상의 주의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의 읽기

읽기는 연극이나 게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게임도 있다. 어떤 읽기의 게임에는 생명이 줄에 달려있다. 그러한 텍스트의 의도에 따라 어떤 텍스트를 읽는 능력은 수백의 아니 수천의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보전이 달려있다. 이제 설명해 보자.

2차 대전의 초기에 영국은 바다에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것의 이유 중 하나는 독일 해군의 통신을 해독할 능력이 결여된 것에 있었다. 독일은 자신들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고안해 내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작전과 영국의 그것을 예측하는데 실패는 영국해군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이 케임브리지로부터 젊은 수학자 알란 튜링을 충원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몇 달 안에 튜링은 뛰어난 창의력으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로채진 메시지는 해독되었다. 그 메시지에서 의도된 의미는 독일의 유보트의 어뢰만큼 실질적이었다. 그 메시지는 수백의 수천의 영국 수병을 바다의 바닥으로 보내려고 작성된 것이다. 어뢰가 터지는 가운데 배는 가라앉고 사람들이 익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포스트모더니스트 해석자들은 이러한 메시지가운데 객관적인 의도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해독가능한 지를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알란 튜링은 독자의 반응이라는 사치스러운 게임을 할 여유가 없었다. 여기에 오해는 거의 확실한 것이다. 계속되는 열정적인 시도는 한편으로는 암호제조기와 다른 한편의 해석자사이에 흥측하게 생긴 넓은 도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객관적인 메시지와 해석하는 주체간의 간극은

극복될 수 없을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감추려는 의지와 밝히려는 의지사이의 간극이다. 정확한 읽기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시도해야만 했고 또 시도되었다. 튜링의 유일한 일은 다른 쪽의 상대가 작업한 후에 생각하는 것이었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었다. 후에 생각하는 것, 암호화한 사람을 심지어 노예와 같은 순종으로 충실하게 쫓아가는 것이 튜링의 성공적인 메시지의 해독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튜링은 확실히 매우 창조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창조성은 따라가는데 있어서의 창조성이다. 포스트모던 접근법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것은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읽음에 있어서 충실한 따름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읽기가 있다.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는 말로 하는 언어와 몸으로 하는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증세라는 텍스트를 직면하게 된다. 의사는 여러 해의 훈련을 거쳐 얻어진 해석의 기술을 사용해야만 한다. 완전한 확실성은 부인된다. 그리고 오해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텍스트를 성실하게 “듣는 것”에 의해 이 가능성은 극복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문화의 생존을 위해 그것의 충실한 읽기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종류의 텍스트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법은 가장 명백한 객관적 의미를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쓰인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흔히 의미의 해석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긴다. 의미의 상충은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 상충은 입법당시 의도된 의미에만 충실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사법판결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판결은 흔히 더 큰 틀인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의 의미를 사유화하는 어떤 시도도 완강한 저항을 만나게 된다. 만약 포스트모던적인 읽기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지배의 종말을 의미한다.

텍스트 그 자체로

이러한 주장으로 나는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주장의 요점은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읽는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텍

트의 종류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지시한다. 특정한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 텍스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조자체가 서로 다른 층의 의미와 유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읽기를 요구하는 텍스트도 존재한다.

확실히 그 텍스트 자체에 적당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 포스트모던 텍스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거트루드 스타인이 쓴 텍스트를 보자.

비가 잘못될 걱정, 초록이 잘못될 걱정, 흰색이 잘 못될 걱정, 쇠사슬이 잘 못 될 걱정, 호흡이 많은 것이 잘못 될 걱정,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의와 좋아함이 있을 걱정,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아스파라거스와 또한 샘을 만든다.

이 텍스트는 허가된 바벨에서 텍스트의 즐거움을 위한 바르트의 이상에 완전히 들어맞는 텍스트이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것은 확실히 튜링이 군사통신을 해독하듯이 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읽듯이 읽을 수도 없다. 아마도 쓰인 것처럼 재미로 읽어서 언어의 유동성과 그것을 가지고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감상하면서 읽기가 기대될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이 글의 부적합성이나 부조리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라고 그래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부터 의도된 즐거움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이해를 위한 논리 실증적 분석은 가장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를 지지하는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순수한 미적인 방법으로만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리다의 그래머톨로지에 관하여가 좋은 예이다.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의 소쉬르와 레비 스트라우스 더 나아가 그의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레비 스트라우스의 슬픈 열대에 기록된 인류학적인 탐사를 통해 형성된 쓰기이론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²⁴⁾ 우리는 확실히 이 책은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미적체험을 위하

24) 데리다, 「그래머톨로지에 대하여」, 가야트리 차크로보티 스피바크 역 (볼티모어: 존 홉킨스 대학 출판사, 1976) 을 참조하라.

여 읽을 수 없다. 서구전통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고 데리다는 이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는 것이다. 데리다가 지적인 유머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데리다가 기대하듯이 가장 진지하게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데리다는 자신의 그래머톨로지에 관하여 가 어떻게 읽혀지기를 원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리다 그 자신이 어떻게 레비 스트라우스를 읽었는지를 보면 된다. 데리다가 레비 스트라우스가 나비비과라 부족의 행동을 관찰함을 통하여 쓰기의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때때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때, 데리다가 모여진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하나하나를 레비 스트라우스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분석한 것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레비 스트라우스의 사회적 설명의 총체적 프로젝트에 숨어 있는 구조인 로고스 중심주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해의 고전적인 예이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의 융합도 없고 독자 반응의 실천도 없다. 데리다의 책에 있는 것은 명백한 방법론적인 분석과 이성적인 비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리다가 슬픈 열대를 읽는 방법대로 그 텍스트는 분명한 객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머톨로지에 대하여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거부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마 그것을 거부하는 게 정당화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메시지를 왜곡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가적 정신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찬 자신을 ‘정지’ 시켜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텍스트 그 자체로” 라는 후설의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텍스트 그 자체가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훌륭한 읽기란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충실하게 텍스트를 따르는 것이다. 읽기의 황홀경은 자신을 망각하는 상태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칼뱅의 유의성

제자로서의 무지의 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려는 용의를 가지고 읽는 것

이, 특별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다루는 무엇인가를 읽을 때, 오늘날의 자기애적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 성경해석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기에 칼뱅은 우리에게 말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책을 읽는 것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것에 칼뱅이 두는 중요성은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와 비교가 된다. 성경학자로서 칼뱅은 먼저 자신을 교회의 교사로 헌신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본다. 그가 다루는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절대적으로 다른 텍스트이다.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많은 종류의 텍스트가 있다. 어떤 것들은 인생의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뱅은 무엇이 성경을 다른 텍스트로부터 구별해주는 지에 관한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유용해도 모든 인간의 과학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쓸모가 없다.²⁵⁾ 이교도 작가들은 역사를 우리의 생명의 선생님이로 삼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칼뱅은 말한다, “아무도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처럼 그것에서 건전한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단지 성경만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²⁶⁾ 성경은 “의로움을 얻는 명백한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형성할 지를 가르쳐 준다.”²⁷⁾ 그것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그 자체로 그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특정한 방법으로 읽으라고 요구한다. 설계된 대로 읽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통신의 암호화된 메시지같이 그것은 전달자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달의 디자인에 고유한 내적 논리대로 해독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안의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감정이다.”²⁸⁾ 독자는 그것이 실존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커다란 회생을 치루고 쓰인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25) 사도행전 주석, 17:16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26) 로마서 주석 4:23.

27) 같은 책

28) 히브리서 주석, 6:17.

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말씀이 되기 위해, 성자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고 그들은 복음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 책임,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존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요한복음 20:31). 칼뱅은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성경은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²⁹⁾

저자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칼뱅에 의하면 성경을 다른 책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위한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성경의 성격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언어로 씌졌지만,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그것은 인간의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다.”³⁰⁾ 칼뱅은 더욱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³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다.³²⁾ 그래서 성경을 주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신성함의 감각이 존재한다. 칼뱅은 주해가로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한다면, 지구상 가장 성스러운 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악하게 준비된 손으로 다루는 누군가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의미를 마치 우리가 즐기는 게임같이 부주의하게 다루면 그것은 주 제넘은 짓이고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다.³³⁾

29) 요한복음 주석, 5:39.

30) *기독교 강요*, 1권 7, 5.

31) *기독교 강요*, 1권 7, 4.

32) 같은 책.

33) *로마서 주석* 토렌스, 존 칼빈의 *해석학* (에딘버러: 스카티쉬 아카데미 프레스, 1988), p. 169.에서 재인용.

저자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에 의해 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실제로 임한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경외의 감정이외에도 깊은 애정의 감각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학교의 교장이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신적인 저자의 임재가 인간 저자들의 존재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 칼뱅은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자가 아니다. 칼뱅은 설명한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영원한 지혜로써 그로부터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나온다.”³⁴⁾ 반면에 칼뱅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특정한 인생의 상황에 위치한 저자들의 관점과 의도도 완전히 잘 알고 있다.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칼뱅은 에피큐르스와 스토아 철학을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한다. 그는 이야기에서 어떤 사실을 기록하려는 누가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한다. “게다가 누가는 정반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그러나 정 반대의 잘못을 범하는 두개의 학파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³⁵⁾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다른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그는 의사로서 펼쳐지는 드라마 속에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묘사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저자로서의 임재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주되심과 주권적 우월성을 남겨두신다.”³⁷⁾ 그래서 저자의 의도의 객관성은 인간 저자들의 의도를 초월한다.

34) *기독교 강요*, 1권 13, 7.

35) *사도행전 주석* 17:18 ff.

36) 같은 책 28:7: “누가는 질병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쉽다. 왜냐하면 이질의 치료가 특히 열이 동반되었을 때 어렵고 느리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늙은이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단순히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적의 도는 인간 저자의 의도보다 어떤 형태의 조종에도 더 완강히 저항한다.

실천적 앎으로서의 경건과 읽기

서구이던 중국이던 인류문화의 긴 역사 속에서, 앎과 존재의 일치는 진리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푸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비록 그리스 철학이 합리성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체는 그 자신을 진리를 아는 것을 쉽게 하는 어떤 작업 즉 영혼의 관상에 의해 영혼의 개종, 정화하는 작업 없이는 진리에 도달 할 수 없다... ‘진리에 순응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유럽의 문화에서 16세기까지 남아있던 문제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는 항상 대가를 가지고 있다. 자기 단련 없이는 진리는 없다...내가 생각할 때 데카르트가 ‘진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단지 내가 무엇이 명백한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주체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전통과 단절한 것이었다.³⁷⁾

칼뱅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이론적인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과학이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성경해석자는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가 주해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말씀되어진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주해를 해야 한다.”³⁸⁾ 이것은 주해자에게 매우 엄격한 요구조건을 부여한다. 칼뱅은 학문에 매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가 먼저 학자가 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⁴⁰⁾ 그는 통탄한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잘 훈련되지 못한 말씀의 사역자가 성경해석에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학자로서 성령의 언어에 의해 자신들을 전적으로 주

37) 개혁전집 (*Corpus Reformatorum*) XXV, 646. 티 에치 엘 파커, *하나님의 말씀* (런던, 루터워쓰 프레스, 1947), 50.에서 재인용.

38) 푸코, *상계서*, 251ff.

39) 개혁전집 (*Corpus Reformatorum*) XXV, 646. 티 에치 엘 파커, *상계서*, 50에서 재인용.

40) 개혁전집 (*Corpus Reformatorum*) XXVI, 406. 티 에치 엘 파커, *상계서*, 59에서 재인용.

조시키지는 습관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⁴¹⁾ 칼뱅의 판단으로는 훌륭한 성경학자는 최상의 언어적 지적인 도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인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영적인 도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작업이 인식론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주님은 상호연결을 통하여 그의 말씀과 성령을 연결시켜서 성령이 그 위에 빛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한다.”⁴²⁾ 성령에 의한 그러한 도구가 없이는 우리는 단지 눈먹고 귀먹은 자이다.

성령의 일은 온전히 새로운 인식론적 지평을 열어주는 데 그것은 가장 친근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객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직관적인 앎이다. 직관적 지식의 객체로서 사람은 직관적 지식을 위한 차이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직관의 전체적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 직관적 지식은 더 이상 우리의 대리적인 구성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직접 교제에 의하여 주어진 것처럼 직접성을 얻는다. 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사색의 결과로 알 수 없다. 나는 그 사람 자신에 의한 자신의 표현을 듣고 알 수 있다.⁴³⁾

그래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따르라고 설득되고 강요되고 끌리는 것이다. 지식은 개인적인 교통이 된다. 우리가 직관의 대상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특히 환원할 수 없는 신적 인격으로 인정하고, 객체를 있는 그대로 알기위해서는 지식의 출발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 특히 신적 인격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다른 사람의 주어짐은 그 자체로 받아져야 한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을 때 까지 순종하는 요청이다. 그러한 것이 진정한 앎의 겸손이고 이러한 겸손은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41) 개혁전집 (*Corpus Reformatorum*) LIV, 68. 티 에치 엘 파커, 상계서에서 재인용.

42) 기독교 강요, I, 9, 6.

43) 토랜스는 인식론적 이야기의 중세의 미로를 헤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칼빈의 인식론적 돌파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토랜스 상계서, 80-95 를 참조하라.

성경을 읽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인격형성을 위한 읽기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거룩함과 신성화하는 데서 진보를 한다.”⁴⁴⁾ 하나님의 말씀의 주해자는 그들이 주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주해는 단지 언어의 노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의 노동이다.

너무 오래 지속된 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해하는 과업을 가진 나 자신과 나의 동료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칼뱅의 디모데전서에 대한 설교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칭찬하며 얼마나 훌륭한 말인가, 얼마나 유식한가, 얼마나 섬세한 마음인가라고 칭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인간이 강대상 안에 들어갈 때 멀리서 보이는 것이 그인가 탁월한 것이 그인가? 천만의 말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설교하는 것이다.⁴⁵⁾

44) 로마서 주석, 15:4

45) 파커, 상계서, 54. 참조.

"오늘날 해석학적 논의와 칼빈의 유의성"에 대한 논평
Response to "Hermeneutical Discussions Today and The
Relevance of Calvin"

유 진열 (성결대학교 교수, 조직, Ph.D.)
Ryu, Jin-yul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책의 성격과 목적을 알고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나는 Yu 박사가 의도한 대로 이 글을 읽으려고 했다. 이 말은 내가 그가 나타내고자 한 내용을 오류 없이 인식하였거나 행간의 모든 뜻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그가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유 박사의 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해는 불가피하고 편견도 확실하다. 따라서 그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좀 오해하고 논평할지라도 그가 이해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물론 나는 오해와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글을 읽지 않았다. 나는 그 오해를 최소화하고 글 속에 숨은 보물을 캐내려고 최선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을 읽는 나의 언어노동이 하나의 근사과정(process of approximation)이라고 믿는다.

이 글에서 나는 반대하고 싶은 것보다는 찬성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한다. 먼저, 내가 동의하는 것은 현대인의 독서 경향에 대한 유 박사의 분석이다. 고대인과 달리 현대인은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자신이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소일거리로 책을 읽는다. 쾌락을 얻으려 하거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성격을 개선하거나 사상을 확장하려고 독서하는 이도 있다. 이들 가운데 기쁨을 얻으려고 읽는 것은 최근의 경향일 뿐이다. 문제는 이 경향이 널리 퍼지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듯이 읽기 쉽고 재미있는 글을 선호한다. 진리와 도덕에 대한 책을 멀리하고 어려운 글에는 무관심하다. 이에 호응하여 작가들은 저작에 있어서 책임감이나 진실보다는 편의성, 기술, 대중성을 더 고려한다. 글을 쓰는 것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의 직업이 된다. 시장논리에 구애 받지 않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자유를 누리는 작가가 더 적어지고 덜 대접을 받는다.

둘째로, 나는 책을 그 저자와 동일시하면서 읽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책은 언어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가의 작품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저자의 사상, 지혜, 개성, 창의성, 세계관을 발견한다. 중요한 의미에서 책은 필자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필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하면서, 그 책의 저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경시하거나 비인격적인 것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오랜 동안 방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책과 저자는 같기 때문에 사람 대하듯이 글도 진지하고 인격적으로 읽어야 한다. 독서는 저자와의 만남이요 대화이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의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얼굴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을 모두 살피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에도 그 문자와 행간을 모두 살피야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나는 독서의 자세를 다양화하고 심화 시켜야 한다는 유 박사의 주장에 공감한다. 즐거움과 정보습득을 위해 읽어야 할 책이 있지만 사람의 도덕의식을 고양하고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책도 있다. 후자의 책을 기록하기 위해 저자는 언어의 노동에 앞서 생명의 노동을 한다. 그 결과로 그런 책에서는 생명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거룩함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책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독서를 하고 그 깊이를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글의 의미를 전달 받을 뿐 아니라 의미창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롭게 창조된 의미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서는 생명을 창조하고 풍요롭게 하는 과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 교수는 책에 나타난 위대한 정신과 진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의 편협한 자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자신을 완전히 잊고 독서에 몰입해야 그 속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자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읽어야 저자가 의도한 뜻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독서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닌가? 그런 독서가 가능한가?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초월하여 높은 인식의 망대에 올라 책에 나타난 언어의 세계를 전망할 수 있는가? 이런 독서 자세가 저자와의 건전한 언어적 교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되어야 할 독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식의 독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느 정도 자신을 잊고 읽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의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의미가 독자에게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냉정한 정보의 수준에 머물지 않겠는가? 오히려 독자는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열정, 호기심,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닌가? 유 박사가 말 한대로,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대화요 인격적인 만남인데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는 그런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책이 저자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신을 잊고 읽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아를 상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읽을 때 책에서 교훈을 얻기 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책이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독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독서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이다. 좋은 독서가 독자 자신을 상실하면서 글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글을 매개로 하여 저자와 지성을 나누며 감정을 공유하려고 한다. 독서는 본문과 문맥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문맥과 다른 문맥

간의 교류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의 산물들 간의 대면이지 지구인과 외계인의 조우가 아니다. 따라서 독자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저자의 삶과 사상에 지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참여하며 대화해야 한다.

나는 Calvin이 성서를 읽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 성령의 역할이 주도적이고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을 환영한다. 성령은 우리의 어둔 마음과 지성을 밝혀주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영적인 일까지 이해하도록 해준다. 그는 신의 계시와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확신 시키며 그에 헌신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신이 한다는 사상은 선을 행해야 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의 은혜를 얻을 정도로 선을 행하거나 성서에서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손상되고 어두워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히 신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는 성서에서 삶의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열정, 호기심, 거룩함, 기대감을 가지고 성서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성서를 읽는데 사람이 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참여 없이 우리가 성서를 그 의도대로 독서할 수 없다

“오늘날 해석학적 논의와 칼빈의 유의성”에 대한 논평
Response to "Hermeneutical Discussions Today and the
Relevance of Calvin"

이 태호 (침례신학대학교 강사, 윤리, Ph.D.)
Lee, Tae-Ho (Lecturer, Korea Baptist Theology University,
Christian Ethics, Ph.D.)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훌륭한 논문을 논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논평을 부탁 받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에 논평자의 임무를 사양 할 까도 생각했지만 이 논문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욕망에 이 일을 수락하였습니다.

데리다와 바르트 같은 포스트모던 비평가들은 우리의 견고한 기초를 흔들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에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데리다는 주어진 텍스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르트는 읽기의 목적은 오직 즐거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직신학과 성경적 윤리학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포스트모던 비평이론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협인 것입니다.

카버 유 박사님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깊은 철학적 이해와 신학적 통찰력과 믿음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가복음에 관한 독자반응 주석이라든지 하는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비평이론의 깊은 그리고 완전한 의

미는 가끔씩 이들 학자들에게는 망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버 유 박사님은 프랑스의 저명한 문예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의 논리를 따라 이러한 비평이론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논리를 논박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박사님은 그들의 이론을 읽기에 관한 하나의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괴물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 박사님의 주장의 요점은 우리가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텍스트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18) 유박사님은 부분적으로 어떤 텍스트에는 포스트모던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을 포스트모던이론의 공격으로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유 박사님은 포스트모던 이론이 후기 산업사회의 상업적 문화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진단합니다. 상업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저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위한 책을 쓰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박사님은 읽기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성격함양을 위한 읽기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운데 접촉하는 것으로써의 읽기가 있는 것입니다. 유박사는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박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한 읽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의 예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알란 튜링의 독일해군 암호해독이라든지 의사의 경우라든지 그리고 헌법의 경우와 같은 예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읽기는 충실도에 따라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잃게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박사는 “텍스트의 종류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지시한다고” 주장합니다. (16)

철학적 논의를 마친 후 유박사는 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독교 학자로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19) 그는 칼빈의 성경에 관한 견해를 답으로 제시합니다. 칼뱅은 성경은 다른 텍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9) 유박사는 칼빈의 “모든 인간과학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유용하여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한 쓸모가 없다는” 칼뱅의 견해에 동조합니다. (19) 그는 또한 칼뱅의 말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20)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장해 준다.” (21)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론적 고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3) 이러한 칼뱅의 신학을 논의한 후 유박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해는 단지 언어의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작업이다.” (25)

저는 이러한 유박사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박사님에 몇 가지 여쭙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포스트모던 글 읽기는 니체, 하이데거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후기 산업사회의 상업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취급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존재의 본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나 푸코나 바르트를 이해하는 것은 니체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그러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롤랑 바르트입니까? 제 생각에는 데리다의 텍스트 해체이론이 바르트의 이론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유박사님은 단지 바르트의 S/Z와 몇 몇 2차 문헌에 바탕을 두고 포스트모던 읽기이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데리다의 ‘텍스트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복음주의의 기독교에 더 위협적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죽음의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하여 저는 유박사님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복음주의 전통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복음주의 전통에 속하지만 다른 전통에 속한 사람들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유박사님의 주장과 논거는 단지 복음주의 전통에서만 수용 가능한 것입니다. .

네 번째로 왜 칼뱅의 성경에 관한 신학이어야 합니까?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대응하려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아니지만 폴 리콥르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칼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 바르트 또한 그의 시대의 자유주의의 공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답도 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신학적의미를 다루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유박사님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장이 다른 전통에 속해있는 학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포스트모던 허무주의를 상대하기 위해 리콥르의 철학을 이용하

거나 아니면 메킨타이어의 전통에 매여 있는 이성을 이용하거나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문이 해석학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